

국제 학술 대회 참가기

◆ Sequences and Their Applications 2001



송 홍 업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부교수/  
부호 및 정보이론 전공

발표논문제목: Characteristic Polynomial and Linear Complexity of Hall's sextic residue sequences

저자: 김정현, 송홍업

본 학회는 workshop 의 형태로 개최되는 소규모 학회이다. 제 1 회 대회가 3 년전 Singapore 에서 개최되었고, 이번에 제 2 회 대회가 Norway 제 2 의 도시인 Bergen 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의 주제는 수도랜덤시퀀스(Pseudorandom Sequences) 이다. 이들의 성질과 응용분야를 다룬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관 특성과 선형복잡도 특성이 주를 이룬다. 수도랜덤시퀀스는 수 많은 응용분야를 가진다. 예를 들면, 대역확산통신 시스템, CDMA 통신, GPS 를 비롯한 항법시스템, 그리고 streamcipher 등이다. 박사과정 김정현과 함께 KLM 항공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Norway 의 제 2 의 도시인 Bergen 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USC 재학 시절의 지도교수님이신 Dr. S.W.Golomb 과 Dr. L.Welch 를 반갑게 만났다.

월요일부터 3 일간의 대회기간이 시작되었다. 병열세션 없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약 30 편의 논문이 순서대로 발표되고, 중간중간의 휴식 시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우선, 한국에서 참가한 서울대학의 노종선교수, 포항공대의 양경철교수, 그리고 홍익대학의 정하봉교수

와도 많은 정담을 나누었다. 주최자이면서 Bergen 대학에 있는 Dr. Tor Helleseth 와 Prgram Chair 를 담당하는 USC 의 Dr. Kumar 와도 반갑게 조우하였다. K. Patterson, M. Parker, G. Gong, G. McGuire, A. Pott, A. Klapper 등등의 젊은 연구자들과도 시퀀스분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규모 workshop 답게, 참가자 거의 전원이 3 일 내내 발표장을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논문발표를 경청하였고, 최근에 내가 참가한 학술대회에서의 나의 모습과도 달리, 나도 단 한편도 빠뜨리지 않고 맨 앞줄에서 3 일을 보내었다. 그만큼, 논문 한편 한편이 내 전공분야와 밀접한 중요한 내용이었고, 흥미롭기도 하였던 것이다. 박사과정 김정현도 중간쯤에 자리잡고 앉아서 3 일간을 나와 함께 하였는데 저녁식사 후에 매일 같이 그날의 주요논문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고, 시차로 인하여 새벽에 잠을 깨면 발표한 논문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참가자는 거의 대부분이 IEEE Information Theory Society 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공저자 관계로 얽혀있는 사이들이다.

대회 이틀째 저녁에는 Bergen 시내의 현대미술관에서 Bergen 시장이 주최한 reception 행사가 있었고, 3 일째 저녁에는 만찬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대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서울행 항공기에 올랐다.

한가지 성과는, 다음 대회를 2003 년 5 월 경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정도 규모의 학술대회는 유치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분야의 국내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모습이 여간 기쁘게 아니었다.